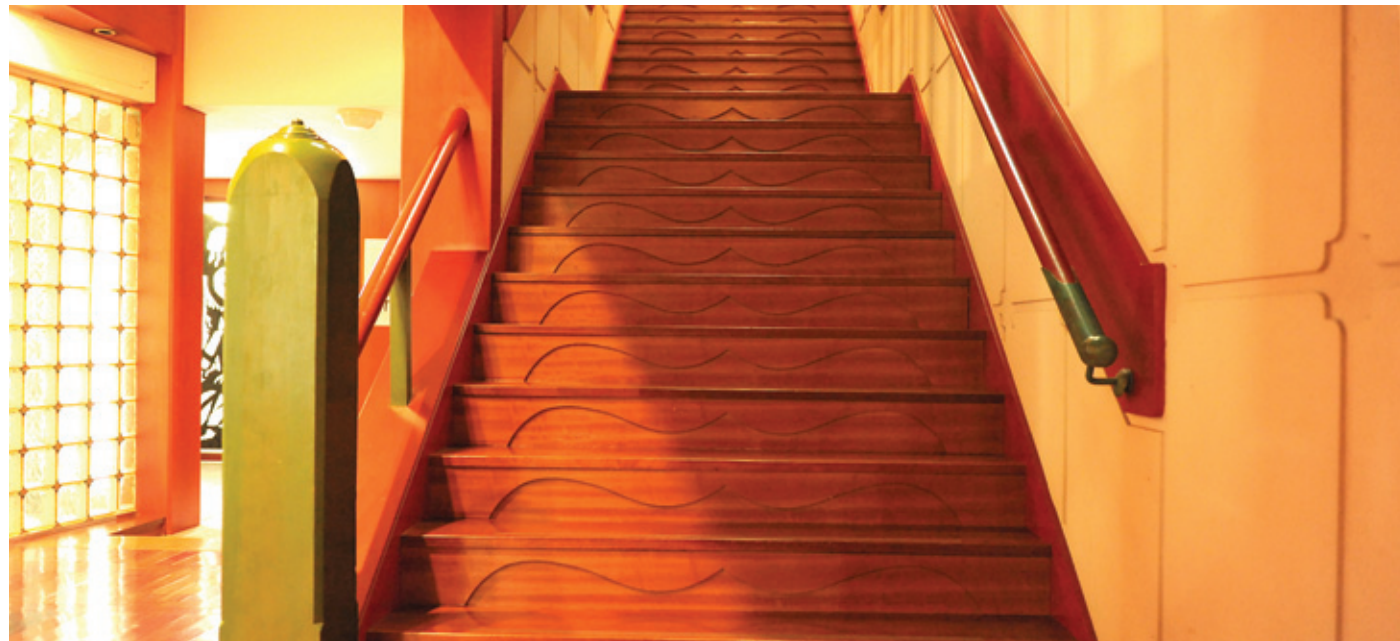


# 사찰 경관은 양식·재료·기술의 조화 여부에 달려



동국대 교내법당인 대각전의 디자인은 현대사찰에서 전통사찰의 계단을 재해석한 좋은 사례다.



재료와 축조방식이 무질서하게 조합된 계단

## 계단(2) 나쁜 사례

### 계단의 치수

계단의 높이는 기단이나 석단의 높이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나라 사찰은 산간 경사지에 조성돼 공간 사이의 높이 차이가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통일신라 전후에 세워진 화엄사찰의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부석사 화엄사 범어사 해인사의 경우 공간을 연결하기 위한 계단이 많고 그 높이 또한 매우 높아 다른 산지사찰과 뚜렷하게 비교된다.

미국의 조경학자 로렌스 할프린(L. Halprin)은 옥외계단의 디딤돌치수는 디딤돌 높이(h)의 2배에 디딤돌의 폭(w)을 합한 수치, 즉 2r+t가 25인치(약 66cm)일 때 가장 좋다고 했다. 일본 건축자료집에는 2r+t가 63cm 정도 될 때 양호하다고 했다. 이것을 보면 옥외계단 디딤돌의 치수는 대체로 2r+t가 63~66cm 정도가 휴먼스케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계단 디딤돌의 치수에 관한 이 수식은 디딤돌의 높이와 폭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만약 폭이 30cm일 경우 높이는 16.5~18cm가 돼야

오르내리기에 편한 계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계단의 치수에 비해 경사가 심하고 지형차가 크게 나타나는 우리나라 산지사찰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보인다. 부석사는 디딤돌의 높이가 20cm 내외일 때 폭이 30cm 내외인 경우가 많고, 해인사는 높이가 22cm 내외, 폭 30cm 내외의 계단이 많으며, 범어사는 높이가 20~24cm, 폭은 30cm 내외의 계단이 많다. 이것을 보면 산지사찰 특히 화엄사찰은 계단 디딤돌의 폭이 30cm 정도이며, 높이는 20~24cm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계단 디딤돌의 치수는 폭에 비해 높이가 상대적으로 높아 계단의 전체 길이는 길고 높이는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 이것이 우리나라 산지사찰에 축조된 계단의 특징이다.

### 계단에 표현된 상징성

사찰경관은 불교사상과 교리의 현현이다. 따라서 사찰의 모든 경관은 경전의 내용을 형식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계단의 조성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관성은 예외일 수 없다. 계단수를 108개로 한 것은 108

번뇌를 상징하는 것이고 48개로 한 것은 48대원을 의미하는 것이며, 33개로 한 것은 33천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수의 적용은 의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계단속의 공간으로부터 성의 공간으로 이행하는 하나의 통과례적 개념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불국사 극락전으로부터 대웅전으로 오르는 계단수를 48개로 한 것이나 연화·칠보교 단수를 33개로 한 것은 바로 법수를 통해서 상징성을 구현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법수를 통해서만 상징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동국대 교내법당인 대각전의 경우 건물내부의 계단을 수미산세계로 오르는 과정으로 생각해 계단을 도입하고 법수를 목재로 조각해 설치했는데, 이러한 디자인은 현대사찰에서 전통사찰의 계단을 재해석한 좋은 사례다. 계단 디딤돌 입면에 연꽃잎을 새긴 것 또한 불교적 상징성을 보여주는 디자인적 해결방법으로 생각된다. 향후 도심사찰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대각전에서 시도한 이러한 디자인적 접근방법이 발전적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해본다. 이것이 바로 전통의 창조적 계승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 되기 때문이다.

### 출지 않은 사례

우리나라 전통사찰에 만들어진 계단은 디자인적으로 우수한 것들이 많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들도 보이는데, 그러한 좋지 않은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양식·재료·기술상의 문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양식상의 문제는 그 사찰의 경관성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으로 과도한 디자인을 적용한 경우, 전통사찰 계단에서 볼 수 있는 디자인요소를 잘못 해석해 이상한 양식을 만들어낸 경우, 원래 있었던



모르타르로 점함한 자연석 계단은 전통사찰의 이미지를 훼손한다.



한 사찰의 화강석 계단의 줄눈이 보여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

### 108·48·33계단 불교적 의미 담겨 과도한 디자인 오히려 부조화

계단의 디자인과는 다른 디자인을 적용해 사찰의 원형성을 해치는 경우 등 다양하다. 과도한 디자인을 적용한 경우는 산지사찰에서 화강석 계단의 소맷돌에 화려한 문양을 넣거나 난간대 받침을 화려하게 조각해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디자인이 일견 특별하게 생각될 수도 있겠으나 산사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것이어서 좋은 디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디자인요소를 잘못 해석한 경우에는 법수석을 지나치게 강조해 법수석의 전통양식과 아주 다른 형식을 만든 경우를 꼽을 수 있다. 특히 계단의 높이가 낮아도 불구하고 법수석의 높이를 과장할 경우 건물의 아름다움을 반감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좋지 않다. 원형성을 해치는 경우는 장대석 석단에 부속된 계단을 색상의 차이가 현격한 화강석을 말끔하게 가공해 처리한다든지 하부에 콘크리트 기초를 하고 판석을 붙이는 등 전통양식과는 다르

게 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사찰이 지닌 진정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좋지 않다.

재료상의 문제는 기존의 재료와는 전혀 다른 재료를 사용해 원형성을 해치는 경우, 재료의 사용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기존의 재료와 다른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을 시간이 만들어낸 디자인의 변화로 볼 수도 있겠지만 원형성을 해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궁극적으로 좋지 않은 사례로 지적될 수 있다. 다음으로 재료의 사용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는 석단의 재료, 계단의 재료가 서로 달라 부조화된 경관을 만드는 것으로 계단을 보수하거나 신설하는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으로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기술상의 문제는 전통적으로 계단을 축조하는 방식이 아닌 특별한 방식을 선택하거나 잘못된 방식을 선택해 전통성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 특별한 방식을 선택한 경우로 통석을 깎아 계단을 축조한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축조방식은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 공을 들

인 계단이라고 볼 수 있으나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그 사찰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축조방식을 따르는 것이 진정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되므로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만약 현대사찰에서 이러한 축조방식을 시도한다면 나쁘지 않은 것이나 그것도 사찰의 장소성이나 전체적인 경관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한편, 잘못된 축조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통사찰에서 콘크리트 구조를 치고 그 위에 화강석 판석을 덮어 시공하는 것, 자연석 계단을 놓으면서 돌을 모르타르로 점함하는 것, 화강석 계단을 놓으면서 줄눈을 모르타르로 처리하는 것과 같은 기술은 전통사찰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므로 피해야 한다.

우리나라 전통사찰에서 나타나는 시공기술의 우수성을 이해한다면 이러한 좋지 않은 시공방법을 선택해 사찰의 경관을 해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부석사 안양루 계단



불국사 극락전에서 대웅전으로 올라가는 48계단

## 국제 승려 具足戒 금강계단 제3회 비구, 비구니계 수계 대법회

### - 국제 포교사(승려, 재가 법사) 품수식 -

출가승이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중생교화, 인간방생의 사명아래 승가의 본분을 이루고자 봉사와 헌신의 맘을 흘려 보지만 나 자신도 모르게 세속에 물들고 환경에 오염되어 흐트러진 자신의 모습에 때로는 포살과 참회의 기도로 더더욱 정진하곤 합니다만, 웬지 부족함을 늘 느끼곤 합니다.

국제불교지도자협회에서는 300여 종단을 불문 어느 종단의 스님이든 모두가 출가 법납이 10년, 20년, 30년이라도 새롭게 출가승으로 거듭나 초발심에 행자승의 마음으로 되돌아 새롭게 발심하는 계기를 마련하여야겠다는 큰 뜻, 큰 마음으로 미얀마 연방 공화국 종교성의 후원과 미얀마 연방 승가회 원로회의 자문과 도움을 받아 具足戒를 주실 三師 七證 大元老 큰스님들을 모시고 상좌부 불교 승려로 거듭나는 남방불교 비구, 비구니 수계를 50분의 큰스님들과 5백여 스님들의 독경에 맞추어 봉행하는 장엄하고 여법한 야단 법석, 국제 금강 계단을 마련했습니다.

### 연방 승가회 계첩(戒牒) 수여

■ 일 시 : 2012년 2월 10일, 수계의식 7박 8일

■ 장 소 : 미얀마 양곤 연방 승가회 원로원 (종교성내)

■ 참가신청 : 서울 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층

한국주재 미얀마 문화원 02) 733-5670. 5665

이력서 1통, 승려증 사본1통, 사진3매, 여권을 우편으로 우송.

· 범종단 차원으로 어느 종단, 어느 스님이든 모든 스님 누구나 다 동참할 수 있습니다.

주 최 :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한국주재미얀마문화원, 미얀마 관광청  
후 원 : 미얀마연방공화국 종교성, 미얀마 연방 승가회